

짜임새 있는 조직운영을 보여준다



서정현 지회장

알게 흐르되 깊은 물과 만나 비로소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삶과 함께 어울렸다가 점점이 찌꺼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들, 혹은 미망의 흔적들이 여름 한철 한때, 비와 바람에 쓸려 간다. 그리고 다시 낮게 패인 지류. 사람들의 숨결이 들리고 다시 무엇인가가 시작된다.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올 것이다. 그 동안에 또 한편의 역사가 기록된다.

중랑천이다. 멀리 북한산, 도봉산의 실개천이 무리를 지어 한강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 중랑천을 싸고 있는 행정구역은 동대문구와 중랑구. 중랑구가 동대문구에서 분리된 것은 불과 10년이 되지 않는다. 장안평, 마장동, 청량리, 약간 한적한 곳에 태릉, 홍릉, 중랑천을 바라보며 높지 않게 누운 용두산. 누가 들어도 한 번쯤은 알만한 지명들이다. 서울에 강남이라는 신예의 다운타운이 일어나기전, 말하자면 서울 6백년이 제대로 놓여 있는 곳이 이곳이다. 서울이라는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는 찾아간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도록 가까운 곳인 지라 달리 감흥이 없을 듯도 하나 그것은 세인들의 관심일 뿐.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동부지회. 지회조직이라는 규모가 말해주듯 이곳은 가히 업계의 역사 한켠이 담긴 곳이다. 동부지회가 1969년에 정식 발족하기 전에는 친목회 정도의 모

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도'라는 것이 태동의 씨앗이 되기에 얼마나 본질적이고 충만한 출발인가. 그러므로 동부지회의 역사는 이미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초대 이필운지회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부지회의 출발은 모든 새로운 일들의 출발이 그렇듯 무척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한다. 사무실을 마련치 못해 이지회장의 로마제과 한쪽 공간을 빌어 비치한 '책상'에서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 해를 거듭하면서 약간씩 모이기 시작한 회비로 좁은 사무실을 얻고 또 늘려 이사하고, 이렇게 하여 현재의 면목동에 위치한 사무실은 수차례의 이전 끝에 마련된 결실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동부지회의 어제, 오늘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히 어려움만의 연속이 아닐 것이다. 이미 회원수 2백이 넘는 규모를 가지게 되는 발전의 세월이라는 것이다.

지금 동부지회는 동대문구, 중랑구를 14개 지역으로 나누어 편성한 가운데 2백10여 업소 회원이 지회를 구성하고 있다. 일부 체인업소를 제외한 지역내 대부분의 체과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 단합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협회조직으로서 큰 자랑거리이다. 지회의 중심에는 서정현지회장을 위시로 윤경하, 이승철부지회장, 지역장을 겸하는

.....
우리가족 한마당

동부지회

초기 소모임부터 시작하여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동부지회는 수년전 '지역장제도'라는

운영방식을 도입,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2백여업소 회원이 제각기 나름의 몫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 지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그 역사에서나 활동력에서나 또 당면한 과제를

대함에 있어서나 동부지회는 업계의 한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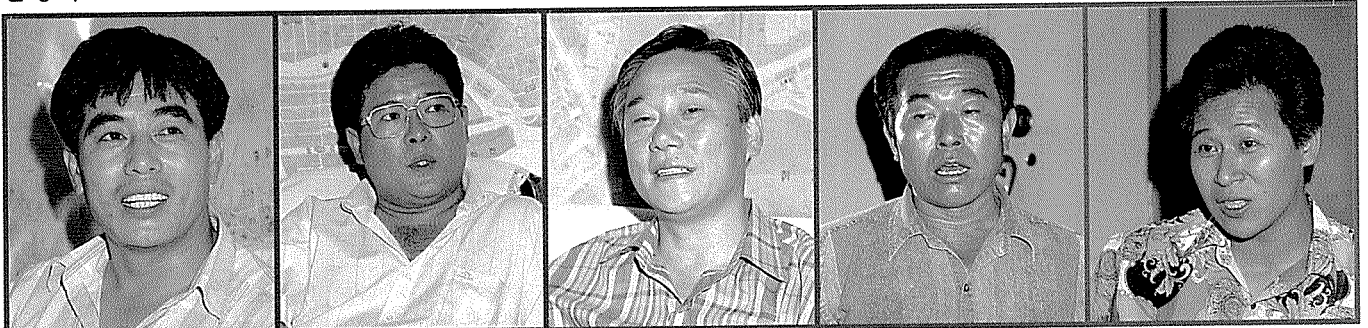
윤경하 부지회장

이승철 부지회장

박태수 고문

김진한 감사

김철익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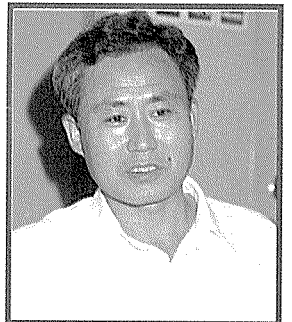
경우도 있기는 하나 지역장과는 별개로 구성된 18명의 이사진, 그리고 2명의 감사가 임원진으로서 지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전지회장 박태수고문과 10년째 동부지회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정성원사무국장. 그냥 열거하기만 해도 규모와 짜임새가 느껴진다.

서정현지회장에 따르면 가까운 몇년 사이에 동부지회가 보여온 발전상은 규모면에서는 물론이지만 내실에서 더욱 부각된다고 한다. 전체의 80%정도가 기술자 자영업소이며 이들 업소가 다소 영세하다고는 하나 그동안 기술력이나 시설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러한 측면은 앞으로 동부지회의 제과업이 꾸준히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상권이 특별나게 발달한 곳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상업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제과점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반면 회원간에 무모한 경쟁심보다는 신뢰와 협조가 우선 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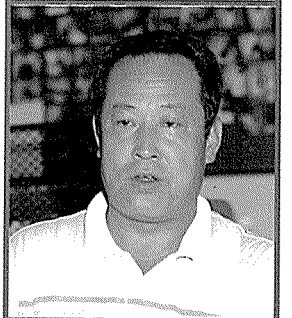
동부지회는 이사회와 지역장제도라는 두개

의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움직여 가고 있는 곳이다. 4년전 다소 방대한 지회의 조직을 중심으로 결집시키고 넓게 흩어진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처음 정성원사무국장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지역장제도는 그동안 동부지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는 회의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체 회원에게 전파하고 또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장치로서 지역장제도는 존재한다. 모든 일이 이 지역장제도에 의한 지역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자율위생지도활동, 기술세미나, 단합과 친목을 위한 모임도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 지회가 통일감을 찾도록 한다. 이 지역장제도는 한편 지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더욱 장점이 부각되어 여러 운용의 묘를 보여준다. 2개 지역을 묶어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지역별로 제과식품회를 열어 이사회 모임 때 전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그 결과를 토의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한때 지역장회의에서 조

김 중 주 이사



신 봉 현 이사



이 명 수 이사



김 중 철 이사

황 춘 연 이사

설 재 기 이사



김 완 구 이사

김 형 집 이사



정 성 원 이사



정 성 원 사무국장

정 결정된 가격기준표가 91년 실효를 봄과 동시에 정부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아 지금 동부지회 관할내에서는 중요한 지표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그렇다.

한편 올해 자율위생지도 결과 대상업소 100%가 종업원 건강진단서를 비치하여 타업종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도 이사회와 지역장제도를 조화롭게 이루어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짜임새 있는 조직의 기반을 닦고 회원상호간의 교류와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업계의 한 부분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동부지회. 앞으로 더욱 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간에 지역중심으로 활성화를 유

도하였던 제반의 활동들을 보다 규모있는 행사로 진척시키고 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지회차원에서 추진력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이다. 기술분과위원회를 지회차원에서 새롭게 조직하여 기술력의 결집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도 그 중 하나가 된다. 다소 방만하게 버려졌던 유사업소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특히 체인제과점을 적극적으로 회원화하여 조직력을 배가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서울에서도 두번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동부지회는 어찌면 우리 협회가 당면한 사안들을 그대로 품고 해결하는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글 김혁득) 